



『심층 이슈』

이태리 만화산업의 향방

출처 : C21 Media (2010/9/15)

주요내용

- 이태리의 만화 산업계는 프로그램의 축소, 디지털로의 전환 그리고 시장의 붕괴 등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음. 이러한 이태리의 붕괴된 만화산업은 방송 예산 삭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후원 축소와 디지털화의 문제점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음. 어떤 이들은 이미 이태리가 이 분야 세계 시장에서 아예 도태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음. Mipcom 이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태리 만화산업계는 그들의 중요성을 세계 시장에 입증할 노력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임.
- 이태리는 코미디 어드벤처 시리즈 Winx Club과 같은 세계적 명성을 가진 만화를 제작하였는데 Winx Club은 세 명의 요술 요정들이 사악한 마녀들과 대항해 싸우는 이야기로 이미 호주, 러시아, 스페인 등 세계 100여 개국에 시리즈를 수출함.
- 그러나 이태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에 매진하며 만화산업계에는 예산 삭감의 철퇴를 맞고 있음. 예를 들어 취학 전 아동 채널 RaiSat Yoyo는 지금까지 Sky 이태리 유료TV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안방에 소개되며 보통 신 프로그램에 20% 예산을 책정해 왔는데 이제는 종전과 달리 자매 네트워크 아동채널 Rai Gulp과 함께 디지털 지상파로 방영이 되게 됨으로

써 예산이 줄어들게 됨.

- 동시에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의 해외 구매는 늘어나게 됨. RaiSat Yoyo의 해외 프로그램 구입은 미국의 Elmo's World, Play With Me, Global Grover 그리고 Pinky Dinky Doo와 영국의 Teletubbies, Little Robots, Fireman Sam 그리고 Bob the Builder 등임. 또한 최근 일본의 만화시리즈 Romeo X Juliet등을 수입함.
- 국내 콘텐츠는 대개 Rai Fiction 과 Rainbow, Mondo TV, Gruppo Alconi 그리고 Enanimation등 이태리 만화 업체들과의 공동제작으로 이루어짐. 프로덕션 제작에 대한 정부의 후원은 거의 없음. RaiSat Yoyo 와 Rai Gulp의 프로그램 판매 및 구매 담당 총책임자인 Sara Cabras씨는 이태리에서는 모든 TV 사들 중 Rai Fiction만이 유일하게 만화 공동제작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이태리 전체에서 제작되는 만화 프로젝트를 후원하기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 언급함.
- “많은 학교들과 교육에 관련된 정부 부서들은 이러한 만화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이태리가 이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럽시장에서 도태 될 것이다. Web TV, 모바일 TV, 온 디맨드, 쌍방향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태리가 이 전략적 분야에 포지션 설정을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Cabras씨는 언급함.
- 올 초 C21은 공영방송인 Rai Tre가 모든 아동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지하였으며 이 프로들을 Rai Gulp!와 RaiSat Yoyo로 이동한다는 기사를 발표한 일이 있음. 이러한 사실이 업계에 퍼지면서 화가 난 Facebook 그룹들이 항의를 했으며 이러하나 결과로 인기 프로그램인 Rai의 취학 전 아동 프로그램 시리즈 Melevisione의 미래도 불확실하게 됨.
- Rai Tre는 이번 결정이 결코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아동 프로그램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방영 될 것이라 약속함. 한편 이태리의 만화제작 협회인 Cartoon Italia의 회장이며 Gruppo Alconi의 사장인 Francesco Manfio 씨는 이것에 대한 재확인을 주장하면서 이번 움직임이 추가 예산 삭감을 불러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Gulp나 Yoyo로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것이 정말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함.
- Gruppo Alconi가 이번 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Manifo씨는 아동 프로그램 수가 줄어 들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Rai Tre에 제작을 의뢰받던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Manifo씨는 말하면서 시험제작품들은 이번 변화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덧붙임. 그는 또한 아동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삭감이 그 어느 프로그램 보다 빨리 실행되어지는 것을 이해 할 수다 없다고 말함.

- 게다가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영이 이태리 전역에서 축소될 전망으로 보임. Rai Gulp가 이태리 전역에 방영되고 있는 반면 RaiSat Yoyo는 전체 인구의 31.1%만이 시청 가능함.
- Rai Tre의 이러한 행보는 이태리가 2012까지 디지털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해됨. 공영방송의 광범위한 프로그램 검토 조건들로 인해 아동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을 얻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애니메이션 업계는 이것에 대한 어떤 판단도 쉽게 내리지 말고 디지털로의 전환이 어떻게 될가는 지에 주목하라고 Cabras씨는 언급함. 한편 그녀는 디지털 전환이 되기 전 아동 프로그램의 제외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디지털 지상파 시그널이 이태리 전 지역을 커버하기 전까지는 Rai Tre사 만화 프로그램 방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태리의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들이 처한 또 다른 주요 문제점은 아동채널 수의 부재에 있다고 Manifo씨는 밝히면서 몇몇을 제외하고 이태리 만화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아동 프로그램의 미래가 달려 있는 Rai의 불투명한 계획안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태리의 아동 네트워크 Disney XD Disney Channel Italia와 Cartoon Network Italy는 자매사인 Boomerang과 함께 Sky Italia에서 방영되고 있음, Manifo씨는 이 채널들은 만화 프로그램의 시간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역과 국제적 수준에서 이익 창출을 위한 경쟁보다는 후원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 언급함. 또한 그는 이것을 위해 우리는 Cartoon Italia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모든 업체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협동해야 할 것이라 주장함.
- 최근 이태리 만화 상을 수상한 Atlantyca 엔터테인먼트의 Geronimo Stilton (left, 26x22')은 최근 좋은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 작품은 로마에 근거를 둔 스튜디오 Atlantyca와 프랑스 Moonscoop의 공동제작품으로 책 시리즈에서 그 원 소스를 발췌하였음. 현재 유럽과 아시아 50여 개

국에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 등에 올 해 말 판매 될 예정임.

- Atlantyca의 중견급 관리인 Caterina Vacchi씨는 이 프로그램은 TV에 방영 되기 이전 이미 책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으며 그 책이 세계적으로 36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이루어 냈으며 3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말함. 이 쇼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이 Geronimo Stilton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Vacchi씨는 언급함.
- Vacchi씨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클래식 캐릭터를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물려 줄 것이다. Geronimo는 영웅이다. Geronimo는 어둠, 거미, 파리 등 아동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지니고 있다. 미디어를 바꾸어 동일한 작품을 선보일 때 연기, 만화, 코미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라고 언급함.